

순창 참두릅 전국 '인기'

롯데마트 5월15일까지 판매
240톤 출하 36억 매출 예상
23일 적성 두릅 한마당 잔치



순창군은 14일부터 롯데마트 전 매장에서 '순창올만에 참두릅'이 전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 참 두릅이 봄철 도시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없어서 못팔 정도로 전국적 열풍이 불고 있다.

군은 최근 14일부터 롯데마트 전 매장에서 순창 참두릅이 전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납품은 순창군이 두릅을 군의 10대 작물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하면서 순창 참두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에 판매되는 순창 참두릅은 '순창올만에 참두릅' 브랜드 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5월 15일까지 판매될 예정이다. 납품은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인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은 전국의 대형매장과 직거래 등을 통해 빠르게 물량이 소진되고 있어 5월 15일까지는 전국적으로 240톤 정도의 물량이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판매금액은 36억여원이 될 전망이다.

두릅은 단백질이 많고 지방, 당질, 섬유질, 칼슘, 각종 비타민이 많아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이다.

특히 참두릅은 사포닌 성분이 많아 혈당을 내리고 혈중지질을 낮춰 당뇨

병, 신장병 위장병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순창 참두릅은 일교차가 크고 깨끗한 청정지역에 자라 인기가 많다. 순창 지역에는 총 240ha에서 두릅이 재배되고 있으며, 주로 대형마트와 가락시장 내 농협공판장, 농협유통센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입소문이 나면서 직거래 판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봄철에만 볼 수 있는 특성상 조기에 판매가 완료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군은 올해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605농가 238ha에 총 3억 4,000여만원, 식재사업비로 212농가 2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오는 23일에는 적성면에서 두릅 한마당 잔치를 통해 도시민들이 순창 두릅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하는 등 새로운 유통망 확보와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순창 참두릅은 향이 진하고 사포닌 등 인체에 유용한 성분이 많아 봄나물로 인기가 많다"며 "앞으로 보다 질 좋은 참두릅이 생산될 수 있도록 품종보급과 기술지도에 노력하는 한편 유통망 확보에도 노력해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임실군, 대구·부산 열차 관광객 유치

250여명 전세 열차로 방문... 내달 21일 2차 계획

임실군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 부산 지역 관광객 250여명을 대상으로 열차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특별전세 열차로 진행된 이번 기차여행은 삼성여행사(대구광역시 소재)와 구포역 여행센터(코레일 부산경남본부)가 공동으로 모객행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전라북도 수화여행 컨설터에서도 전담 지도사를 지원해 전북도 및 임실군 지역의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주요일정은 부산역을 출발해 구포역, 밀양역, 동대구역 등을 거쳐 임실역에 도착(오전 11시) 후 버스를 이용해 임실치즈파크, 전통시장, 필봉농악 공연 등을 관람했다.

특히, 이번 열차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은 사전에 전통시장 및 임실을 소개 음식점 등을 방문해 친절과 청

결상태를 점검하고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음식점 리플릿'을 제작하는 등 수용태세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임실전통시장 김경수 상인회장은 "기존 관광상품은 체험 위주로 진행돼 시장 상인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군과 함께 협력해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대구, 부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실'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며, "앞으로도 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달 21일에도 여행사 및 코레일 등과 협력해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구, 부산지역의 관광객 2차 특별열차를 유치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 애향장학생 50명 선발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가 2016년도 애향장학생 50명을 최종 선발했다.

애향장학회는 18일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학생 40명, 고등학생 10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이날 선발된 애향장학생은 대학생 20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의 1년 장학금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지급받게 된다.

애향장학회 이사장 심민 군수는 이날 이사회에서 "군 우수인재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지원 및 각종 장학 사업에 최선을 다해 우수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은원 씨 '백제 국악경연' 종합대상

남원시립국악원 단원으로 일반부 판소리 부문 참가

한국국악협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의회,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 2회 부여 백제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남원시립국악원 김은원(33)씨가 영예의 국회의장 상 종합대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수상하였다.

김은원씨는 4월 16일(토)~17일(일) 양일간 400여명이 참석한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예선, 본선, 결선 종합성적 1위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 중 하나인 '백제 전국 국악 경연대회'는 전국 초, 중, 고 및 일반 국

악 인재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매년 전국 최고의 국악인재들이 경합을 펼치는 장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은원씨는 일반부 판소리 부문에 참가하여 예선, 본선 심사위원 최고점을 받아 종합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초등학교 때 국악에 입문한 김씨는 2015년 '세종대왕 전통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일찍부터 국악계를 이끌 유망한 소리꾼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김은원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창으로 거듭나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국악의 대중화에

고창 '제9회 아산면민의 날' 성료

조규표 씨 면민의 장, 하오재·강복섭씨 체육발전유공자 선정

고창군 아산면 '제9회 아산면민의 날' 행사가 지난 16일 고창 아산면 대야초등학교 교정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아산면민회와 아산면사무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면민의 날 행사에는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군의장, 장병식 도의원, 김기현·박정숙·조규철 군의원과 기관사회단체장, 나봉길 재경향우회장을 비롯한 재경·재전 향우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지난 3월 아산면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부산 해운대구 최영근 구의원과 박수경 좌2동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규표 씨가 면민의 장을 수상했으며

체육발전유공자로 하오재, 강복섭씨가 선정됐다.

강택희 아산면민회장은 "새봄을 맞아 면민과 각지의 여러 재외군민들을 모시고 화합의 한마당이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정을 나누고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면민의 날 행사를 통해 서로 우의와 정을 나누고 아산면과 고창군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이어 본 행사에서는 민속놀이, 체육행사와 더불어 면민한마당, 행운권 추첨 등 면민이 어우러져 친목을 다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산 장애우들 강천산 산책 즐겨

순창 강천산군립공원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히 걸을 수 있는 힐링 산책로로 인기를 끌고 있다.

18일 강천산에는 특별한 관광객들이 방문했다. 부산지역 40여명의 장애우들이 강천산을 방문해 비경을 감상하며 산책을 즐긴 것. 이날 캠퍼는 강천산 군립공원이 산이러서 걷기 힘든 것이라서 일반적 편견을 없애고 남녀노소는 물론 장애인도 걸을 수 있는 편안한 관광자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실제 이날 40여명의 장애우들은 저마다 조금씩 불편한 몸이지만 힘겨워하지 않고 강천산 맨발산책로를 걸으며 강천산의 봄꽃과 기암괴석,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등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강천산의 절경을 감상했다.

강천산 맨발산책로는 왕복 5km 구간으로 경사가 완만한 길이 이어지며 걷기 편한 모래가 깔려 있어 등산객은 물론 가족단위 관광객이 산책하기 안심맞춤 길이다. 또 벼롱 폭포, 구장군 폭포, 깨끗한 계곡, 봄꽃 단풍 등 계절마다 독특한 관광자원은 물론 고려시대 지어진 강천사, 삼인대 등 문화재도 많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날 강천산을 방문한 장애우들은 "처음에 산을 간다기에 걱정했는데 강천산 산책로는 그냥 평지를 걷는 것처럼 편안해 모처럼 숲속을 걷는 체험을 편안히 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군은 5월에는 대구 지역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대구도 캠퍼 행사를 할 계획이다. /순창=구인규 기자

고창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창군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해 오는 10월 말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18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올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산야초와 건강관리 △청소년상담 △사주명리학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생활중국어 등 5개 과정이다.

특히 사주명리학지도사와 치매예방지도사 과정은 민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수강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녹두대상 수상자 신용하 씨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제9회 녹두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지난 15일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및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제9회 녹두 대상 수상자'로 전 서울대학교 교수인 신용하씨를 선정했다.

신용하씨는 1985년 한국학보 여름호와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사회사라는 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신 씨는 1985년 한국학보 여름호에서 제1차 동학농민혁명 1894년 3월 20일 전라도 무장에서 봉기한 대규모 조직적인 농민혁명운동으로 주체세력을 구축하고 무장포고문을 발표하는 등 혁명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혁명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사회사'에서는 제1차 동학농민혁명운동의 혁명성에 대해 서술했고, 무장포고문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풀이하는 등 고창동학농민혁명과 무장기포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무장읍성축제 기념식에서 개최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